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s of Conflict with Parents,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시간강사 안 선 정*

고신대학교 교양학부

조 교 수 이 현 철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아동가족학전공 · 장수생활과학연구소

부 교 수 임 지 영**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

Lecturer : An, Sun-Jung

Division of General Studies, Kosin Univ.

Assistant Professor : Lee, Hyun-Chul

School of Child Studies, Major in Child and Family Studies · CBA(Center for Beautiful Aging), Kyungpook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Lim, Ji-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f self-esteem mediates the effects of conflict with parents,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adaptation in relation to the satisfaction with life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subjects of the present study are 152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ranging from 12-16 years of age from the cities of Seoul, and Daegu, and the provinces of Gyeong-gi, and Gyeong-buk, South Korea. The measured constructs are Conflict with Parents, Friendship, School Adaption, Self- Esteem and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The dates were analyzed using path analysi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self-esteem does not mediate the effects of conflict with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 in relation to the satisfaction with life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However, self-esteem does mediate the effects of school adaptation in relation to the satisfaction with life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주요어(Key Words) : 부모자녀갈등(conflict with parents),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 학교생활적응(school adaptation), 자아존중감(self-esteem), 삶의 만족도(satisfaction with life)

* 주 저 자 : 안선정 (E-mail : onlysally@hanmail.net)

** 교신저자 : 임지영 (E-mail : limj@knu.ac.kr)

I. 서 론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자 하는데 이는 청소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 지식중심의 교육제도, 경쟁적 구도 등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Yoo, Shin, & Jeon, 2010). 2009년 5월에 보고된 OECD 26개 회원국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성적, 학교 재학률, 학업열망 등의 교육적 측면에서는 전체 2위의 상위수준이었으나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은 최하위였다(연합뉴스, 2010). 또한, Kim and Hong(2007)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 발달특징과 더불어 교육제도 등으로 인해 삶의 만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더욱이 한국의 교육실정상 청소년들은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며 자신과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절망하게 되면서 만족스러운 삶과는 더욱 멀어지게 되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심화될 수 있다(Kim & Park, 2004). 이와 같이 청소년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부적응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만족을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는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해 다인종·다문화(multiracial and multicultural)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증가¹⁾는 자연스럽게 학령기에 돌입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2010)의 통계에서는 2007년에 비해 중학생은 1,588명에서 4,814명으로, 고등학생은 413명에서 1,624명으로 3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부모가 모국의 문화와 한국문화를 조화 있게 융화하거나 적응하지 못함에 따라 부정적 특성을 보이며(Jung, Yoo & Lee, 2007), 부모의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각각 다른 이중 문화 속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그들은 태생적으로 언어, 풍습 등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없는 환경에서 부모와의 문제로부터 극복해야 할 많은 과

제를 이미 안고 출발하며(Lee, 2007),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빈곤세습의 위험, 학습부진, 자아정체성 혼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Jung, 2006; Shin, 2007).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문화와 민족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학교생활적응 및 또래관계에서 더욱 그러하다. 부모의 이중문화로 인한 문화적 갈등과 정체성 혼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부모로 인하여 적절한 언어습득의 어려움, 그리고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학습과 학교생활적응에서 일반가정의 아동·청소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Min, 2005; Oh, 2005; Han, 2009). 또한, 많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또래들의 소외와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과 폭력의 대상이 되어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며, 학습부진, 중도탈락률 증가, 낮은 취학률과 진학률 등 학교에서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부적응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부적응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ee(2007)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응은 교사, 친구의 폭행이나 따돌림, 폭력이나 비행등의 사회 환경 경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Park and Lee(2009)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일반가정 아동들에 비해 교우관계 형성에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였다. Oh(2005)는 같은 반 친구들의 폐쇄적인 태도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놀림대상이 된 다문화가정 아동은 친구들과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등 부적응현상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외모의 차이와 어머니가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인한 또래들과의 부정적인 관계형성이 학교적응의 어려움과 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Hong, 2007; Kim, 2007). 교육인적자원부(2006)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점은 '학습 결손'과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부적응'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적응 문제는 다른 청소년이 겪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Woo, 2007).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는 생김새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적응과 또래관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보건복지부, 2005; Cho, 2006; Shin,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 역시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가질 것이라 예측 가능하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태생적 어려움과 더불어 청소년기에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많은 발달적 과업들과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역할에서의 변화(Feldman & Elliott, 1990; Holmberg et al., 2000)로 인한 혼란 등 이중의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1) 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2)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인은 14만4천681명 보고되었으며, 국내 결혼이민자 증가치를 보면 2006년 2만2천119명, 2007년 2만766명, 2008년 2만106명, 2009년 1만9천676명, 2010년 2만6천839명에 이른다.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에 대한 과도한 중압감으로 성적이나 학교에서의 인정 등이 삶의 만족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Cha & Kim, 2002), 삶의 만족도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 수준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Choi, 2003),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Jung, Yoo, and Lee(2007)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발달상 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는 학교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학교는 미래를 위한 지식 교육은 물론 또래관계를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는 역할을 하는 곳이며, 집단생활을 통한 사회경험과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하여 학교생활은 일반가정 청소년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도 중요한 부분임을 밝혔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도 학교생활적응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Kim, Oh, & Choi 2006; Kim & Beak, 2008; Kim & Park, 2009)은 대부분 일반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 이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현재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Diener, 1984) 혹은 개인의 기대수준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충족되는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성격 강점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간주되어 왔다. 최근 심리학자들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개개인의 주관적 행복을 연구할 필요를 느끼기 시작하였으며(Campbell, 1976), 이러한 연구들은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안녕, 행복, 삶의 만족도 등의 다양한 용어로 진행되었다(Son, 2009).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하위변인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생활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등으로 나뉘며, 연구에 따라서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자신에 대한 만족도를 추가하기도 한다(Lubin & Whitlock, 2004).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개인내적 요인과 환경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상태이므로(Diener & Fujita, 2005),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정, 사회 등의 여러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측면에서 과도기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가족을 비롯한 주변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Choi, 2001).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내적 특성, 부모

와의 관계를 포함한 가정환경요인, 친구 등의 학교환경요인과 다양한 사회문화적 수준 등의 생태학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Cho, Kim, & Kim, 2011). Gilligan and Huebner(2002)의 연구에서도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자아개념과 삶의 만족도와와의 영향력 등 다차원적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강조하였으며, Oh(2010)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정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영역으로 이 가운데 인간관계는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는 유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변화와 혼란이 존재하는 시기로 청소년기에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많은 발달적 과업들과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역할에서의 변화가 존재한다(Feldman & Elliott, 1990; Holmberg et al., 2000).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존재하며, 아동기에 비해 심리적 장애 및 문제 행동의 유형과 빈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Resnick et al., 1997). 또한, 청소년들은 발달단계상 2차 성장과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면 정신적인 변화를 많이 겪게 되면서 심리적 갈등이 많고 역할에 대한 혼미를 겪으며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Jung, 2007). 즉, 심리적 격동과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경향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와의 마찰과 갈등의 빈번한 시기이며(Beak, 2000), 청소년기는 부모의 권위에 주로 따르는 아동기와는 달리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Kim & Jung, 1997). 특히, Arnett(1999)는 청소년기에 고조되는 혼란의 3가지 핵심적인 특징으로 감정적인 불안정성, 위험한 행동, 부모와의 갈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관계가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부모는 여전히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인식처이며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Markiewicz et al., 2006).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있어 부모-자녀 간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하는데 있어 부모자녀 간 갈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봄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자녀갈등과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생리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 시기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 중 주된 것으로 자아존중감의 발달이 있다(Jung, 2010).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지각한 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로서 자신의 성취와 의미 있는 타인 및 다양한 영향에 의해 형성되는 가치판단이라고 정의되고 있다(Coopersmith, 1967; Harter, 1982, 1983; Rosenberg, 1979, 1985). 청소년기의 자아

존중감 발달은 건강하고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Lee, 2003), 자아존중감은 삶의 여러 발달과업 가운데 중요한 과업이며 특히 인생의 결정적 시기인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형성은 더욱 중요하다(Jung, 2010).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청소년 시기의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때(Kim & Kim, 1998), 환경적 요인은 가족관계, 또래관계, 학교생활 등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환경적 요인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들은 가족환경(Kim, 1993; Kim, 2003), 또래관계(Lee, 2003; Jang & Kang, 2005), 학교생활(Kim & Kim 2000; Jang & Kang, 2005)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가족관계 요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부모(Coopersmith, 1967)는 인간이 태어나 가정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들을 제공하며, 이것을 통한 상호작용은 일생에 걸쳐 한 인간의 행동이나 정서, 성격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Rosenberg(1965)는 부모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여러 연구(Lee, 1989; Kwon & Yoon, 1993)에서도 자녀의 솔직한 의사표현과 부모의 적극적인 경청은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또래관계라고 많은 선행연구들(Harter, 1982; Lee, 1994; Lee & Jean, 1995)에서 밝히고 있다. 즉,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유능성 동기를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자아기능의 효율성을 강화하고(Harter, 1982),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Bukowski & Hoza, 1989; Vandell & Hembree, 1994). 또한 자신의 또래관계를 만족스럽게 평가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Berndt, 1992, 1996). 학교생활 관련 변인들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들(kim & Kim, 2000; Jang & Kang, 2005)에서는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Park(200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논의는 학업성취도와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환경, 학급분위기와 관계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제도,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학교분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며 자신과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도 한다(Koo et al., 2006).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을 같은 수준으로 직면하는 것은 아니

다. 어떤 청소년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잘 적응하여 자신 있고 활기차게 생활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심리적으로 더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학습이나 또래관계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도 있다. 이처럼 같은 시기를 겪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수준이나 적응의 차이, 심리적 고통의 차이는 개인의 특성 즉, 자아존중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초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및 심리적 변화로 인해 예민해지고 불안정해 질 수 있는 시기로서 초기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이해와 수용의 태도를 갖는 것은 이후의 부적응을 예방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며 스스로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 특성을 보이며 삶 자체를 훨씬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 반면에 청소년기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증 같은 심리적 불안정, 이탈행동, 자살 등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연결되며, 이후의 삶과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낮은 자아존중감(Koo et al., 2006)과 낮은 자기효능감(Park & Kim, 2008)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낮추었다. Lucas, Diener and Suh(1996)은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Kim(2012)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는 변인 중 하나가 자아존중감이라고 하였다. 또한, Shin, Jeon, and Yoo(2010)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Chae(2013)도 문화권과 연령에 상관없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는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여 그 관계를 검증하고, 특별히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개인변인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의 과정적인 측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그들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안정된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삶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II. 연구방법

-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및 그 경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역할을 하는가?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과 서울·경기지역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 1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26세($SD=1.49$)로,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등학생에 해당하며, 연령에 따른 빈도는 구체적으로 만 12세 56명(36.8%), 13세 36명(23.7%), 14세 24명(15.8%), 15세

Figure 1. Hypothesized Research Model

Table 1. Demographics and Adolescent Characteristics

N=152

Variables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n(%)
Gender	Girl	81(53.3%)
	Boy	65(42.8%)
	NA	6(3.9%)
Age	12	56(36.8%)
	13	36(23.7%)
	14	24(15.8%)
	15	20(13.2%)
	Above 16	6(4.1%)
	NA	10(6.6%)
Academic Achievement	High	17(11.2%)
	Middle	85(55.9%)
	Low	38(25.0%)
	NA	12(7.9%)

20명(13.2%), 16세 이상 6명(4.1%), 그리고 무응답이 10명(6.6%)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 65명(42.8%), 여자 청소년 81명(53.3%), 무응답 6명(3.9%)이었다. 학교 내 성적에 따른 분포도에 따르면, 상집단이 17명(11.2%), 중집단이 85명(55.9%), 하집단이 38명(25.0%), 무응답 12명(7.9%)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자녀갈등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부모 간의 갈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Conflict with Parents(PQM; Grottpeter, 1998)를 번안하여,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Gerard(2002)의 연구와 Park, Lee, and Choi(2003)의 연구에서 청소년과 부모 간의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나의 부모와 나는 서로에게 화를 낸다.', '나의 부모는 나를 성가시게 여긴다.', '나의 부모는 나에게 성가시게 대한다.', '나의 부모와 나는 말다툼한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각각 평가하여 총 8문항으로 측정된 전체점수를 사용하였고, 전체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9로 나타났다.

2) 또래관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Friendship(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을 번안하여,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실제로는 우정척도이나 여러 선행연구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Yoo, 1999; Park, 2005; Lee, 2009)에서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척도이므로 해석상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것은 또래관계 확인(예, 00는 내가 자신의 친구라고 말한다), 또래 도움(예, 만약 어떤 아이가 내 물건을 가져가면, 00는 그 아이에게 그것을 되돌려 달라고 말한다), 또래 갈등(예, 00는 나를 놀린다), 또래관계에서의 특별함(예, 00는 우리 반의 다른 친구들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 또래 간 부정적 정서 공유(예, 나는 00와 나의 슬픈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의 전체점수를 사용하였고, 전체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6로 나타났다.

3) 학교생활적응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김아영(2002)이 '학업동기 표준화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나는 선생님과 자유

롭게 이야기 한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대부분 재미 있다.', '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며, 6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의 전체점수를 사용하였고, 전체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2로 나타났다.

4)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Self Esteem(Rosenberg, 1979)을 번안하여,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이것은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내가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느낀다.'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며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전체점수를 사용하였고, 전체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7로 나타났다.

5) 삶의 만족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Satisfaction with Life Scale(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를 번안하여,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여러 선행연구들(Kim, 2007; Lee, 2011; Kim & Lim, 2012)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내 삶의 환경은 아주 좋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등 총 5문항으로 구성되며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의 전체점수를 사용하였고, 전체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의 문항 이해도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에서의 문제점,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2010년 3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완성된 질문지를 2010년 5월에 서울·경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회수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대상자인 청소년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지역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안내문과 함께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작성이 완료된 질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학교 학급의 담임교사나 센터의 담당자에게 질문지의 목적을 설명하고 회수하도록 부탁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통한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통한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의 모형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절대적합지수는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하지만 가장 전반적인 지표인 χ^2 값은 자유도와 사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값의 변화 폭이 크기 때문에 다른 평가지표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GFI(Goodness of Fit Index, 적합지수)는 주어진 모형이 조사한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해 줄 수 있는가를 나타내며 .90 이상이면 수용가능한 수준이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는 모형을 표본이 아닌 모집단에서 추정하는 경우에 기대되는 적합도이며, 이 값이 .10이하이면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을 의미하며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Jung, 2010).

증분적합지수는 기본 모형과 연구자가 제안한 모형의 적

합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NFI(Normed Fit Index, 표준화적합지수)와 CFI(Comparative Fit Index, 비교적합지수) 사용하고자 한다. NFI는 연구자가 제안한 모형이 기본 모형에 비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나타내며 이 값이 .95이상이면 우수한 모형임을 나타내며, CFI는 잠재변인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하는 기본 모형과 제안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90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수준임을 의미한다(Jung, 2010)

1. 수정 모형의 검증

먼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경로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설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가설모형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변수들 간 가능한 직접경로와 간접경로를 모두 설정한 모형으로 포화모형이다. 포화모형은 정보의 수와 경로계수의 수가 같아 자유도가 0인 모형을 말하며 이런 경우 간명 모형의 가능성을 보이면 모형인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Kim, 2010). 본 연구의 가설모형의 경우에는 모형적합도는 NFI가 1.000, GFI가 1.000, CFI가 1.000로 나타났으나, RMSEA값이 .396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적합도와 간명도가 높은 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가설적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면서 이론적 타당성을 함께 고려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가설 모형에서 또래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또래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친구

Figure 2. Summary of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Variance of Research Model

Table 2. Model Fit Summary of Research Model

Model	χ^2	df	p	NFI	GFI	CFI	RMSEA
Competing Model	.008	1	.929	1.000	1.000	1.000	.000

Table 3.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of Research Model

Paths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Regression Weight	S.E.	C.R.
Conflict with Parents → Satisfaction with Life	-.176	-.162	.061	-2.669**
Conflict with Parents → Self-Esteem	-.149	-.091	.043	-2.118*
Peer Relationship → Self-Esteem	.046	.031	.056	.547
School Adaptation → Satisfaction with Life	.279	.246	.066	3.697***
School Adaptation → Self-Esteem	.488	.283	.051	5.576***
Self-Esteem → Satisfaction with Life	.371	.562	.113	4.954***

* $p < .05$, ** $p < .01$, *** $p < .001$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친구와의 애착이 높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Kwak, 1995; Jeon, 1996; Jo, Kang, & Lee, 2012)고 한 반면, Yoo, Lee and Kim(2005)의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orsano, Majorano, and Champretavy(2006)의 연구에서도 친구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 특성에 따라 고독을 즐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혼자 있기를 선택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가설 모형의 경우 또래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제거하였으며,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경로도 유의하지 않았지만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검증에서 다른 변인들 간의 비교를 위해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으로 수정모형을 확정하였다.

수정모형은 <Figure 2>와 같고 수정 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 모형의 RMSEA값은 .000, NFI가 1.000, GFI가 1.000, CFI가 1.000으로 나타나 수정모형이 잘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정 모형에 기초하여 각 변인들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정 모형은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다. 변인들 간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모자녀갈등은 삶의 만족도(-.176, $p < .01$)와 자아존중감(-.149, $p < .05$)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은 삶의 만족도(.279, $p < .001$)와 자아존중감(.488, $p < .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71, $p < .001$).

2. 수정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가를 검증하였다.

간접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의미하며 간접효과에 대한 분석은 $X \rightarrow Y \rightarrow Z$ 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X변수가 Y변수에 의해 매개되어 Z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Sobel 검증(Sobel test)을 하거나 Amos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한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모델의 간접효과 뿐만 아니라 모든 모수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수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이 가능하다(Moon,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 뿐만 아니라 직접효과와 총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데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였다. <Table 4>는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분석결과이다.

먼저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경우에만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였으며,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매

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of Research Model

Paths		Direct	Indirect	Total
Conflict with Parents		-.149	.000	-.149
Peer Relationship	Self-Esteem	.046	.000	.046
School Adaptation		.488*	.000	.488*
Conflict with Parents		-.176*	-.055	-.231*
School Adaptation	Satisfaction with Life	.279*	.181*	.460*
Self-Esteem		.371*	.000	.371*

* $p < .05$

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효과는 .279, 간접효과는 .181, 총효과는 .460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삶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생활적응이었으며,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역시 학교생활적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이나 또래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고 그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대구·경북 지역과 서울·경기지역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 152명이었으며 경로분석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다. 변인들 간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모자녀갈등은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은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경우에만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

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이나 또래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갈등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자녀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유형이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한 Jang (200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청소년기에 자녀의 솔직한 의사표현과 분노의 적극적인 경향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가져온다고 한 여러 연구들 (Lee, 1989; Kwon & Yoon, 1993)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Rosenberg(1965)도 부모와 친근한 관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갈등의 경우 모든 변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인 관계형성의 경우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있어 부모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며 스스로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건강한 심리 사회적 발달 특성을 보이며 삶 자체를 훨씬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Kim & Lee, 2010). 덧붙여, 청소년기 자녀들은 인격 성장의 과정으로 독립성을 계속 발전시키는 발달 과업이 있는 반면에 부모의 본질적인 소유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므로 부모자녀 관계가 불안

정하게 되며 갈등이 심화된다. 이러한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할 때는 주위환경과 심한 마찰을 경험하여 반항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현실 도피나 정신장애를 일으키기 쉽게 된다(Beak, 2000).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모자녀 간 갈등은 다문화가정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갈등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효과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감을 발달시키게 되며 또래와의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나 또래에 대한 애착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한 Kim(2009)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반면, An, Lim and Chung(2012)의 연구에서는 일반가정 아동과는 달리 또래관계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그들의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내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인 어머니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문화적 차이, 낮은 사회에서의 적응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아동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대인관계의 폭이나 깊이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Oh, 2005). 청소년기는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욕구가 강해지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래집단에 더 몰입함으로써 또래집단이 중요한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되며(Choi & Kim, 2003), 이를 통해 청소년의 유능성 동기를 향상시키며, 자아기능의 효율성을 강화하고(Harter, 1982),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Vandell & Hembree, 1994)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형성의 장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생활적응이었으며,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역시 학교생활적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학교생활적응을 잘할수록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 수준도 높으며, 학교생활적응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 수준은 정적상관이 있다는 연구들(Lee, 1999; Kim, 2002)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경우 입시에 대한 과도한 중압감으로 성적, 학교에서의 인정 등이 삶의 만족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힌 Cha and Kim(2002)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Kye et al.(2001)의 연구에서도 발달상 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는 특히 학교생활이 중요하며, 학교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서 학교에서의 만족도 여부는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학교적응을 잘하는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그들의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의 세 가지 변인 중 학교생활적응만이 유일하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의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긍정적인 학교적응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통로가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만들어 주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학교는 지식교육은 물론 또래관계를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곳이며, 집단생활을 통한 사회경험과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2005)의 연구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많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또래들의 소외와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과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학습부진, 중도탈락률 증가, 낮은 취학률과 진학률 등 학교에서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부적응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Oh(2011)의 연구에서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는 것은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향상시키는 것이기에 교육공동체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선행요건이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은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하다 (Choi, 2011).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학교는 학업을 성취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동화하고 적응성을 지니는 인격을 형성하며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도 우리사회의 기능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원만하고 정서적인 유대감 형성, 긍정적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증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만을 연구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모든 변수들을 측정하여 조사하는 횡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을 포함하여 실험연구 및 질적연구방법을 동시에 실시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여 그 관계를 검증하고,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삶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REFERENCE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09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경란(2007).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계수(2010). *Amos 18.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보고서. 서울: (구)보건복지부.
- 연합뉴스(2010). 미래주역의 행복지수가 OECD 꼴찌인 현실 (연합시론). 2010. 5. 27. <http://news.naver.com>
- 장정효(2005).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기능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신현(1996).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 63-82.
- 정옥분(2007).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옥분(2010). *아동연구와 통계방법*. 서울: 학지사.
- 정하성·윤진이·이장현(2007). *다문화청소년이해론*. 파주: 양서원.
- 조영달(2006).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 3.
- An, H. & Yi, S.(2009). Academic achievement : Comparison of childre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 and gene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1), 1-10.
- An, S., Lim, J., & Chung, G.(2012). Influence of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peer relationship on children's self competence : Comparis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korean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1), 15-28.
- Arnett, J. J.(1999). Adolescent storm and stress, reconsidered. *American Psychologist*, 54, 317-326.
- Beak, M.(2000). *A study on the parents-adolescent conflicts*. Unpublished master thesis, ChonNam University, Gwangju.
- Berndt, T. J.(1992a). *Obtaining support from friend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D. Belle(Ed.),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189-212). N.Y.: Wiley.
- Berndt, T. J.(1996b). Exploring the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346-365).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kowski, W. M., & Hoza, B.(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Eds), *Peer*

- Relationship in Child Development*(15-45). N.Y.: Wiley.
- Campbell, A., Converse, P. E., & Rogers, W.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olutions, and Satisfactions*. N.Y. : Russell Sage Foundation.
- Cha, K. & Kim, M.(2002).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mong high-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203-209.
- Chae, J.(2013). The influence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 communication with fathers, and the self-concept of middle school student on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1), 39-48.
- Cho, S., Kim, H., & Kim, M.(2011).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in the ecological contex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3), 87-98
- Choi, J. & Kim, M.(2003). The Study of adolescents' friendships general characteristics, satisfaction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3), 373-394.
- Choi, K.(2003).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won.
- Choi, S.(2001). *Study on social support and life stress of parentless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Choi, S.(2011).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chool life adaptation of a student in a multicultural family and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Secondary Institute of Education*, 59(2), 261-287.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rsano, P., Majorano, M, & Champretavy, L.(2006).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The contribu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experience of being alone. *Adolescence*, 41(162), 341-353.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 Fujita, F.(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Feldman, S.S., & Elliott, G.R.(1990).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 Harvard Press.
- Gerard Bernard, F. (2002). *Marital conflict and childhood relational aggression: A gender-balanced approach to understanding adjustment problems in middle child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nnesota, USA.
- Gilligan, T. D., & Huebner, E. S.(2002).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reports of adolescents: a multi-trial-multimethod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2(7), 1149-1155.
- Grotpeter, J. K.(1998).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amily relationshi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USA.
- Han, J.(2009). *The progressive analysis of schoo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Sung University, Pusan.
- Harter, S.(1982a).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1983b).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self-esteem. In P. H. Musse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4), pp. 275-385. N.Y.: John Wiley & Sons.
- Holmberk, G .N., Colder, C., Shapera, W., Westhoven, V., Kenealy, L., & Updegrove, A. L.(2000). *Working with adolescents: Guides from developmental psychology*. In P.C. Kendall(Ed.), *Child & adolescent therapy: Cognitive-Behavioral Procedures*(2nd ed., pp.334-385). N.Y.: Guilford Press.
- Hong, Y.(2007). *A study on children's educational problem of multicultural family and it's implications*. Unpublished master thesis,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 Jang, H. & Kang, T.(2005).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thei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Journal of Korean Communication Association*, 13(2), 104-130.
- Jeon, K.(2008).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teenagers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normal family in Gyeonggi Prefecture -Based on school life and family lif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6(1), 167-185.
- Jo, J, Kang, J., & Lee, B.(2012).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friendship network on Korean adolescents'

- life satisfaction. *Social Science Review*, 43(1), 47-71.
- Jung, H.(2006).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mixed ethnic children: focused on the marriage of korean man with asian woman*.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Jung, M.(2010). *The effect of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 on adolescent's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 thesis, Deagu Haany University, Gyeongbuk.
- Kim, A.(2002). Development of standardized student motivation scale.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15(1), 157-184.
- Kim, A.(2003). The effects of parental conflicts, social supports,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on early adolescents'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3), 351-372.
- Kim, B.(2007). *Differences i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optimism level of youth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Kim, H. & Hong M.(2007). Exploration of the extents and factors explaining well-being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2), 269-297.
- Kim, H. & Kim, K.(1998). The effects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2), 47-60.
- Kim, H. & Kim, K.(2000). A longitudinal study of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delinquency and self - esteem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5), 15-24.
- Kim, J. & Lee, H.(2010). The effects of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1), 21-32.
- Kim, J.(2012). The effects of youth volunteering on community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1), 41-62.
- Kim, K.(1993). Causal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 Mother related variables, maternal parenting and children's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6(1), 37-50.
- Kim, N. & Lim, Y.(2012). The verification of intervening effect of youth ac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8), 219-240.
- Kim, O., Oh, Y., & Choi, M.(2006). The school-life satisfaction with background factor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hild Education*, 15(1), 195-207.
- Kim, S. & Baek, H.(2008). The construction of korean youth happiness Index.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6), 140-173.
- Kim, S. & Chung, M.(1997). Research : Exploration of variables related to mother - adolescent conflic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3), 181-191.
- Kim, S.(2002). *The effect of internet addiction school adjustment and scholast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 thesis, KyungSung University, Pusan.
- Kim, S.(2009).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s' Self-esteem : The Mediating Role of Adolescents' Attachment toward Parents and peers*.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S.(2010). *Comparison of psychological features between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ren in general families regard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 thesis, Ehwa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U. & Park, Y.(2004).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Korean adolescents and adults at home, school, work and leisure setting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4), 973-1002.
- Kim, Y. & Park, O.(2009).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Youth Activities -Focusing on self-esteem, Vocational Maturity, academic achievement, Life satisfaction, Stress, Delinquency-.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Youth Welfare*, 11(1), 79-99.
- Koo, H., Park, H., Yoo, M., & Jang, E.(2005). The Relation among smoking behaviors, self-esteem, hostility, and depression for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6(4), 1321-1333.
- Kwak, K.(1995).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in terms of KLSSA.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1), 5-16

- Kwon, H. & Yoon, C.(1993).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patterns and ego -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14(1), 167-177.
- Kye, S., Lee, J., Kim, M., Park, M., & Yoo, E.(2001). A study on the adolescents' school life and their level of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2), 57-72.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1996). Friend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ee, H.(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daptation of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 Lee, H.(2003).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al discipline by middle-school students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J. & Jean K.(1995). Research : Perceived competence of children and perception of responsibilities of parents based on age, sex, sociometric statu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6), 225-244.
- Lee, J.(1994). *Study on children's home environment and peer group environment and their self-perceived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K.(1989). *A study on the self concepts of adolescents and the communication with mother*. Unpublished master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Lee, K.(2003). The effects of children's perceived communications with mothers, self-esteem on school adjustment. *BULLETIN OF THE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DONG-A UNIVERSITY*, 11, 197-214.
- Lee, Y.(2007).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psychosocial adjustments of children of multi-culture famil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Kong-ju University, Chungnam.
- Lee, Y.(2009).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life adjustment of gifted children in regular and gifted classes*. Unpublished master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Lee, Y.(2011). *A study on th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for adolescents : focusing on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agu.
- Lubin, B., & Whitlock, R. V.(200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brieflife satisfaction scal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0, 11-2
- Lucas, R. E., Diener, E., & Suh, E.(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71, 616-628.
- Markiewics, D., Lawford, H., Doyle, A. B., & Haggart, N.(2006).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use of mothers, fathers, best friends, and romantic parents to fulfill attachment nee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127-140.
- Min, A.(2005). *Group art therapy for the children of migrant workers with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MyungJi University, Seoul.
- Nam, Y.(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lf-concept and depress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e and general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Oh, H.(2010).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area of chungnamdo : Focus on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 thesis, HoSeo University, Chungnam.
- Oh, K.(2011).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Their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and adaption to korean school lif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9), 83-97.
- Oh, S.(2005). A case study on the growing of kosian children and its social environment.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2(3), 61-83.
- Oh, S.(2010). An exploratory study on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 Its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Idea*, 24(2), 149-170.
- Park, A., Lee, K. & Choi, S.(2003). Study on measurements validity of quality of relationship between Korean mothers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17(4), 1-15.
- Park, K.(2007). *A study on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won.
- Park, S.(2005). *The comparison between scientifically gifted*

- children and ordinary children in peer relationships and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Gyeongnam.
- Park, Y. & Kim, U.(2008). The quality of lif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2(4), 801-836.
- Park, Y. & Lee, S.(2009). Survey on the school lives of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tergroup differences and intragroup diversitie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1(1), 41-71.
- Park, Y.(2001).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child's self-esteem, attachment and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Unpublished master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Resnick, M. D., Bearman, P. S., Blum, R. W., Bauman, K. E., Harris, K. M., Jones, J., Tabor, J., Beuhring, T., Sieving, R. E., Shew, M., Ireland, M., Bearing, L. H., & Udry, J. R.(1997). Protecting adolescents from harm. Finding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n Adolescent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8, 823-832.
- Rosenberg, M.(1979a).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 Rosenberg, M.(1985b).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hy(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pp. 205-246). N.Y.: Academic Press, Inc.
- Shin, H.(2007). *A study on factors effect the ego- ident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Shin, M., Jeon, S., & Yoo, M.(201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and wellbeing in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9), 131-150.
- Son, B.(2009). *Influence of character strengths on military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Vandell, D. L. & Hembree, S. E.(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0, 461-477.
- Woo, R.(2007). The Actual state of multicultural youth in urban and rural communities. *청소년보호지도연구*, 11, 25-54.
- Yoo, A., Lee, J. & Kim, J.(2005). The impacts of body-image, attachment to parent and peers, and resilience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5), 123-132.
- Yoo, B.(2010). *A comparison of self-esteem and health behavior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and homogeneous famil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Yoo, M., Shin, M., & Jeon, S.(201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in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9), 131-150.
- Yoo, S.(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friendship and school adjustment in childhood*.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접수 일 : 2012년 11월 29일

□ 심사 일 : 2013년 02월 08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3월 19일